

저가형 프랜차이즈 소비 쏠림... 소상공인과 매출 격차 확대

공정위 '지난해 가맹사업 현황 통계' 가맹점 평균 매출 3.7억... 4.3% ↑ 소상공인 1억9700만원... 2000만원 ↓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감소하면서 자영업 시장의 양극화 흐름을 보였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가맹점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7000만원으로 전년(3억5000만원) 대비 4.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억9700만원으로 전년(1억990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맹점 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소상공인 매출은 감소하며 매출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가맹점 평균 매출액(2024년 기준)이 3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1억

9600만원으로 5.7%, 도소매업은 5억 69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

공정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소비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업 매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가맹산업의 외형은 성장세다. 2025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9960개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고, 브랜드 수는 1만3725개로 10.9% 늘었다. 가맹점 수 역시 37만9739개로 4.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브랜드 수가 1만 886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2181개, 도소매업 658개 순이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업이 18만3714개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12만5401개, 도소매업 7만 624개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는 외식업 가운데 한식 가맹점이 4만3882개로 가장 많았고, 커피 2만9101개, 치킨 2만8750개 순이었다. 매출 증가율은 피자(8.7%), 한식(8.3%), 커피(8.3%), 치킨(5.2%) 등 대

부분 업종에서 상승했다. 다만 주점 업종은 2.4%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가맹점 수가 12만 5401개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평균 매출액도 1억9600만원으로 5.7% 증가했다. 도소매업 역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5억70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

다만, 가맹산업이 확대되면서 일종의 유통마진인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역시 증가하며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2600만원으로 전년(2300만원) 대비 300만원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4.4%로 전년(4.2%) 대비 소폭 상승했다.

주요 세부 업종별 차액가맹금은 치킨 업종이 4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과제빵(3000만원), 커피(2600만원), 피자(2400만원), 한식(2000만원) 업종이 뒤를 이었다.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치킨 업종이 9.5%로 가장 높았고, 커피(7.3%), 제과제빵(4.9%), 피자

(4.6%), 한식(2.6%) 업종 순이었다.

공정위는 가맹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사전심사없이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법' 규정을 구체화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등 가맹희망자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한계점주가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필수품목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가맹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 가맹점이나 가맹본부에 편중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코트라, 인도에 'K-콘텐츠·소비재' 소개

'K-라이프스타일 인 첸나이' 열어 SM엔터 참여... 아티스트 IP 체험 문화 체험으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인도 남부 시장 선점과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해 현지시간 10일부터 이틀간 첸나이 최대 쇼핑몰인 '익스프레스 애비뉴 몰(Express Avenue Mall)'에서 '2026 K-라이프스타일 인 첸나이 (K-Lifestyle in Chennai)'를 개최했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인도 남부 경제 요충지인 첸나이에서 K-콘텐츠와 소비재를 결합한 복합 수출 마케팅에 나섰다.

코트라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첸나이 최대 쇼핑몰인 '익스프레스 애비뉴 몰'에서 '2026 K-라이프스타일 인 첸나이(K-Lifestyle in Chennai)'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첸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력한 이번 행사는 콘텐츠와 소비재 진출의 시너지를 노린 'K-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주도 첸나이)는 자동차와 ICT 산업의 중심지이자 두터운 젊은 소비층을 보유한 지역이다. 코트라는 최근 인도 내 K-팝 팬덤이 단순

시청을 넘어 앨범과 굿즈 등 실물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에 주목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처음으로 참여해 아티스트 IP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현장에는 이틀간 1000여 명의 현지 소비자가 방문했으며, 인도 주요 OTT 플랫폼 및 대형 영화관 체인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상담도 병행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기관들도 인도 남부에서 K-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활동에 함께 했다. 인도한인회와 한국관광공사는 각각 전통 식문화 체험과 한국 문화 체험존을 운영해 현지인들의 인기를 끌었다. 화성시 서남아 사절단 등 유망 수출기업들이 참여한 팝업 스토어에서는 28개 브랜드의 K-소비재 및 콘텐츠를 선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 새울 3호기 '첫 시동' 성공

본격적인 시험운전 실질적 출발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2일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 3호기(140만kW급)가 이날 '첫 시동'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첫 시동'은 원자로 내에서 연쇄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전소가 본격적인 시험운전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새울 3호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한

이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고온 기능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시행해 왔다. 이번 성공은 수년간 진행된 설계와 건설 공정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새울 3호기의 첫 시동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연료 수급이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해 12월 촬영한 새울 3(오른쪽), 4호기 전경. /한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보 공유

중소 해외 탄소시장 진출 발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6년 제1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식공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공사 홍보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분야 해외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사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사례, 민관협력 기반 사업 추진방식, 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참여

기업이 실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사는 현재 매립가스 포집과 활용, 바이오가스 자원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식을 기반으로 해외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다각화와 해외 확장을 지속 추진 중이다.

공사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사업 기획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사의 공신력과 민간의 기술

력을 결합한 협력 방식을 통해, 해외사업 추진 시 협상력 강화와 위험 요인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원순환 기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해외 확산을 통해 한국형 녹색 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뒷받침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 녹색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어촌공, '안전 영농·풍년 기원' 통수식

올해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 본격화

올해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일 경기 안성 고삼저수지에서 '2026년 대표 통수식'을 개최했다.

통수식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다. 겨울 동안 닫아뒀던 저수지 수문을 열어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한 해의 안전 영농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행사가 열린 고삼저수지는 안성시 일대 농경지 2970헥타르(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다. 공사는 고

삼저수지를 포함한 안성 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사의 사전 대비와 시설 개선에 힘입은 결과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가뭄이 우려되는 저수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아울러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배수 시설을 개선해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수질 개선에도 힘써 왔다.

공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능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